

진드기에 대하여

2005. 3. 19.



1.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진드기

진드기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지만, 천식이나 아토피성피부염 등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것은 지리다니(チリダニ)科에 속하는 고키호우다니(コナヒョウダニ)·야케호우다니(ヤケヒョウダニ)이다. 살아있는 진드기나 死骸, 똥(糞) 등을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알레르기가 일어난다.(살아있는 진드기·死骸·똥(糞)·오줌(尿)·알·떨어진 껍질의 모두가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진드기란 피부의 부드러운 곳을 깨물어 가려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호우다니는 깨물지도 않고, 그대로는 알레르기의 원인도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死骸나 똥이다. 호우다니의 死骸나 똥은 대부분 수분과 단백질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10~40미크론(0.01~0.04mm) 정도이다. 그 死骸나 똥이 건조하여 가루가 되면 數 미크론이 되어, 코나 신체로 들어가기도 하고, 땀에 녹아 신체에 흡수되면 알레르기 증상의 요인인 “알레르겐”이 되는 것이다.

또 쓰메다니(ツメダニ)는 사람을 찔러 피부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관지천식이나 아토피성피부염, 만성비염 등은 70% 전후가 진드기가 주원인이며, 소아기관지천식에서는 90% 라고 전해지고 있다.

2. 진드기의 종류

	호우다니	고나다니	쓰메다니	이에다니
종류				
생육 장소	먼지 속에서 생육, 카펫, 이불, 베개 등에 많다.	다다미나 식품에 많다.	다다미나 카펫에 많다.	쥐의 몸이나 쥐의 집에서 생활
먹이	먼지, 비듬 등.	벗질, 건조식품	다른 진드기나 작은곤충	쥐, 포유류의 혈액
피해	아토피성피부염, 소아천식, 쓰메다니의 발생촉진.	대량발생시 다다미가 가루를 일으키듯이 하얗게 되고, 쓰메다니 발생 촉진	사람을 찔러 가려움의 원인이 된다.	사람을 찔러 가려움의 원인이 된다.

3. 진드기의 이력서

진드기의 몸길이는 成虫이 약 0.3~0.4mm로 아주 작고, 몸은 유백색을 띠고 있어서 육안으로는 거의 볼 수 없다. 고온다습(온도 20~30℃, 습도 60~80%)한 환경을 좋아하고, 인간의 비듬이나 땀 등, 주로 실내먼지를 먹이로 번식한다.

몸에 마디나 촉각은 없고, 알모양(卵形)의 몸통 앞 끝부분 근처에 입을 가지고 있다. 유충 일 때는 6개였던 다리가 2주 정도 뒤에 성충이 되면 8개로 된다. 대부분의 種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 몸의 길이는 종류에 따라 0.2~10mm로 크게 다르다.

효우다니(ヒョウダニ)는 하루에 알을 1~3개 낳고, 한 마리의 산란 총수는 200~300개, 성충의 수명은 2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온도·습도의 조건이 충족되면 약 3주만에 알에서 성충으로 되어 폭발적으로 번식한다. 시트에 단 한 마리의 진드기가 들어가면 반년 후에는 3만 마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번식의 피크는 6~10월이다.

4. 진드기의 서식장소

진드기는 車内の 어느 곳에나 있다. 고온다습하고 먹이가 있는 장소를 좋아하며, 숨을 장소가 있는 시트, 매트, 카펫 등의 장소가 진드기가 살기 좋은 곳이 된다. 그 중에서도 모포로 된 시트의 경우, 의자 등받이 부분에 가장 많이 발견된다. 시트에 앉을 때에 떨어지는 비듬이나 때는 등받이 부분에 많이 달라붙기 쉽고, 또 몸과의 접촉에 의해 등 가운데 부분의 온도나 습도가 높아지는 것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진드기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것은 등받이와 앉는 부분의 접합부이다. 거기는 햇볕도 닿지 않고, 어둡고, 습기도 깃들기 쉽고, 음식물 부스러기 등도 쌓이기 쉬운 부분이므로 진드기의 생식에 적당한 것 같다.

또 車內는 기밀성이나 보온성이 높고, 에어컨 등으로 1년 내내 진드기가 좋아하는 온도나 습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진드기에게 있어서는 더욱 살기 좋은 만점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진드기는 표면보다 내부에 숨어 있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표면과 비교해서 100배 이상) 내부는 어둡고, 습도가 안정되고, 먹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5. 진드기의 구제(驅除)에는 가열이 최고

진드기는 어느 것이나 열에 약하고, 온도 50℃에서 효우다니(ヒョウダニ)는 1시간 이내, 쓰메다니(ツメダニ)는 30분 이내, 고나다니(コナダニ)는 5분 이내에 죽는다. 일반적으로 진드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써 이불 등을 자주 햇볕에 말리지만, 표면은 50℃ 이상이 되어도 내부는 50℃ 이하이기 때문에 진드기가 안쪽으로 도망쳐 버려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 점에서 스팀(증기)은 140℃ 라는 고온과 증기 등으로 내부까지 침투시켜 가열에 의해 진드기를 뿌리째 뽑아 제거할 수 있다.

6. 진드기 제거 방법

진드기 전용의 살충제를 사용한다. 증기, 煮沸(끓임), 건열(乾熱), 햇볕 건조 등으로 가열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입고 있는 옷이나 이불, 식품 등은 한 번 잘 빨아서 일광소독한다. 기생하는 진드기에 직접 피레스로이드(ピレスロイド)를 처리하면 숙주(宿主)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용단은 되도록 통째로 빨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청소기는 회전브러시가 붙은 것을 사용하면 좋다.

습도를 낮추는 데는 환기가 최고다. 진드기 한 마리가 있으면 3개월간 30만마리가 된다. 이것을 전멸시킨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면 계속 共存하는 진드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드기는 습도 60%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둔해진다. 습도 60%를 유지하도록 하자.

7. 장마철에 도움이 되는 진드기 대책 2가지 소품

1) 선풍기 : 이불이 마르지 않을 때에 선풍기를 대거나 서랍 속을 향하게 한다. 또 세탁물을 실내에서 말리면 아무래도 습기가 높아진다. 그럴 때에는 목욕탕에서 말리고, 문을 단아 두고 선풍기나 환풍기를 돌리면 4시간 정도에서 마른다.

2) 청소기 : 死骸, 똥(糞)을 제거하는 데 필수 불가결! 살충제를 사용한 뒤에도 잊지 말도록 한다. 1평방미터당 20초 정도 돌리자. 제습기(除濕機)·에어컨도 유효하다. 능숙하게 사용하자.

어떻습니까? 진드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습니까?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근질근질 가려워오지만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敵(진드기)에게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았다면 다음은 공격(Cleaning)만 하면 됩니다.